



1부 09:30 인도 : 1부 이종백 목사  
2부 11:30 2부 권태환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86:9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28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94 (새해 2)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310장 | 다함께
- 중보기도 | 1부: 정재섭 집사  
2부: 신상균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열왕기상2:5~9 (구약p. 510) | 인도자
- 찬양 | 1부: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 고등부  
2부: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되어도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결초보은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에벤에셀 하나님
- 찬송 | 나의 영혼이 잠잠히 | 다함께  
모든 상황속에서
-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복, 그사랑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 다음주 기도 : I 부 : 장종규B 집사 II 부 : 임규선 장로  
\*\*\*\*\*



# 설 명절 가정 예배

◎ 다음주 : 제4부 남선교회 헌신 예배

## 수요기도회

19:00 인도 :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권한주 집사
- 찬양 | 16샘(아람샘)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창세기3:1~6 | 인도자
- 설교 | 소통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임은진 집사 찬양 : 제2여전도회

##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298장	528장	324장	220장	205장	366장
말씀	막2:1-12	막2:13-28	막3:1-19	막3:20-35	막4:1-12	막4:13-25



본문 : 열왕기상2:5~9

제목 : 결초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유언입니다.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바르실래입니다. 잠송보다 못한 사람, 잠송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다보니,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르실래만큼은 꼭 갚겨주고 싶단, 보답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정말 끔찍한 사람, 잊을 수 없을 사람으로 바르실래를 지목합니다. 7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파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과 바르실래 인연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급히 도망치듯 피신했어요. 얼마나 다급하게 궁을 빠져나왔는지 모릅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빠져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 바르실래가 먹을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때 바르실래의 나이가 80세 노인이었어요. 다윗을 함정 돕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 대부분 백성은 이제 다윗 왕 시대는 끝이 나고 압살롬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했었죠. 왕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고 여겼어요. 바로 이럴 때, 다윗 왕을 도왔다가, 압살롬이 알게 되면 목숨을 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르실래는 다윗을 돕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습니다. 삼하17:27-29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했습니다. 바르실래의 도움을 받은 그날, 다윗이 얼마나 큰 감동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게 되면 평생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침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도 누구보다도 바르실래가 기뻐요. 바르실래가 왕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찾아가서 또 영접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래를 향해 나랑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자, 이제 내가 너를 평생 도울 것이라. 다윗이 바르실래에게 상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래는 사양합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왕궁으로 들어가면,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패를 끼칠 따름입니다. 집만 됩니다. 바르실래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무익한 종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기 아들, 가족들을 위해서 자리와 상을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러나 바르실래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바르실래를 다윗은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죠. 비록 바르실래는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 후손들을 잘 대접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래의 자식들을 잘 챙겨라. 너랑 같은 식탁에 앉게 하라고 유언합니다. 결초보은이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못지극하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 사람을 왜 만났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남을 것인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사람으로 인생이 정말 복되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변했다. 이런 은혜의 사람,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남을 것인가?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이야 당연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겠죠. 설령 내가 그 은혜를 갚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갚아 주시겠죠. 사람은 혹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은혜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받은 은혜도 역시 물이 흐르듯 흘러보낼 수도 있어요. 물에 새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해서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사람이 기억이 짧아 잊어버리고, 실사 힘이 없고 복이 없어 갚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틀림없이 갚아 주시겠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둬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일어서 갚겨주십니다. 사람이 갚겨주는 것과 하나님이 갚겨주는 것 어느 것이 더 복입니까? 하나님이 갚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는 사람, 비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심어, 은혜를 얻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월 (주관 : 김성수 장로)

Table with 3 columns: 구분 (Division), 안내 (Notice), 봉헌 (Offering). Rows include 1부 (1st Service), 2부 (2nd Service), and 차량안내 (Vehicle Guidance).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List of supported church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사타자교회, 동가톤교회, 동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etc.

예배모임 안내

Table of worship services with columns for time (1부, 2부), date, and service type (예배, 찬양,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경북 안동시 관청길 67(옥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Table listing church staff and members: 원로목사 (Pastors), 부목사 (Deacons), 교육목사 (Education Pastor), 원로장로 (Elders), 은퇴장로 (Retired Elders), 시무장로 (Pastors), 지휘 (Music Director), 오르간 (Organist).

- 환영 \*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 오후 찬양예배 :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 시순절(2. 14. 수~3. 30.)기간입니다. 온 교우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목요 경배와 찬양(이번 주 주제: 성령) :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엘리프실
\* 금요기도회 순회회 : 2월 달까지입니다.
\* 설 명절 새벽기도회 : 9일(금)~12일(월), 설 명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는입니다.
말씀 \* 청년부 동계 수련회 : 15일(목)~17일(토), 도원교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수요기도회 특송 : 16생(아람생)까지 끝난 뒤에는 어전도회부터 드립니다.
\* 교회 침소 : 설 명절 관계로 이번 주는입니다.
\* 설 명절 관계로 오늘 주방은입니다.
\* 경안노회어전도회연합회 제95회 정기총회 : 15일(목) 오전 8시 30분~ 낮 12시 30분, 안동동부교회
\* 안동시정로총연합회 42회 정기총회 : 17일(토) 오전 11시, 안동시민교회
\* CTS, 경안노회 신학교육부 주관 목회 컨퍼런스 : 27일(화) 오후 2시~ 5시 30분, 안동동부교회
강사 - 한국일 교수(장신대), 노지훈 목사(익산 움직이는 교회), 백영기 목사(청주 쌍샘자연교회)
참석대상 - 지역 목회자 및 평신도 사역자
\* 경안신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 1. 22일(월)~2. 29일(목), 3월 5일 개강
수업장소 - 경안노회 회관 3층 강의실, 문의: 859-8001
교인동정 \* 개업: 박진서, 김계은A 집사 - 생각나면 해물찜(약수모델 옆 구. 동산슈퍼 자리, 841-7075)

건축현금 계좌 :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십일조, 감사현금 계좌 :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 십일조 : 장근숙 강숙일 권기환 권남수 김기욱 김승열 김경숙 김영환 김용호 김경숙 김영D 김계해 박정덕 박중순 변인화 손원애 손정혜 송금주 신승현 신승훈 우성화 이순덕 이화자 임혜경 정석진 정순남 정순열 정주영 천기환 최경분 믿음소망사랑 무명2명
감사 : 강도순 강순교 강양숙 권기환 김민정 김경숙 김영희 김우관 김용순 김계은A 김영D 김진호 문재현 민기식 민요한 민창재 박유분 배중숙 배진수 변인화 석화란 손원애 안진희 유키영 이평원 임도경 임하경 장석배 정문호 정석진 정순남 조미영 조영애 최규원 최은영 최정애 홍태순 어울림순례사랑 무명2명
생일감사 : 권남수 김분덕 남영락 박정민 안소영 이명조 전수용 조영애 무명2명 주정봉헌 : 246명
건축 : 강도순 권기환 김경일 김정아 김영D 남희연 류영희 박정덕 박정서 박중순 박지우 배문민 손원애 손원희 신승훈 안영심 안경준 안성택 정석진 정승혁 정승호 조순호 최순남 최애경

교회창립 1950년 9월 셋째주일
DOWON PRESBYTERIAN CHURCH



2024 표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